
출장보고서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이 소 영

1**출장 개요****□ 출장 목적**

- 출생 및 인구규모 감소에 따른 실태 조사의 변화 동향에 대한 국외 사례 파악

□ 출장 지역 및 방문 장소

- 네덜란드 헤이그: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GGP) 중앙코디네이션 본부)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연구자 면담

□ 기간 : 7월 29일- 8월 2일**□ 주요 일정**

년월일	행선지 (국가/도시)	방문기관/면담자	활동사항
2019/07/2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에서 출국 - 암스테르담 도착
2019/07/30	네덜란드/헤이그	GGP 중앙코디네이션 본부 / Dr. Susana Cabaco (데이터 관리 및 조사팀), Dr. Thomas Emery (project 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스테르담에서 헤이그 이동 - 프로젝트 개요, 데이터 관리 및 조사 관련 내용 논의
2019/07/31	네덜란드/헤이그	GGP 중앙코디네이션 본부 / Dr. Thomas Emery (project 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스테르담에서 헤이그 이동 - 차기 조사 과정, 조사 명칭 및 출산력 주제 관련 논의
2019/08/0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nne Gauthier 교수 (University of Gronin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GS 데이터 활용 연구 관련 논의 - 암스테르담에서 출국
2019/08/02	한국/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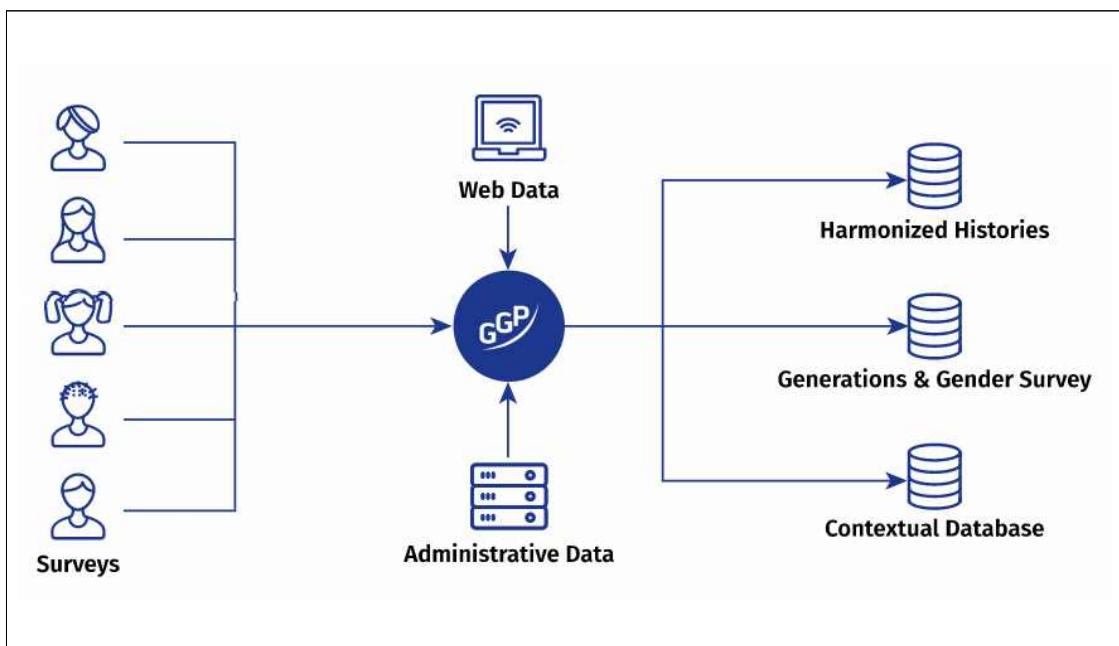
□ GGP 개요, 데이터 관리 및 조사 수행에 관한 논의

- 일시 및 장소: 2019. 7. 30. 13:00~15:30 ; GGP 중앙코디네이션 본부
- 면담자: Dr. Susana Cabaco(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Dr. Thomas Emery(GGP Central coordination Team)

○ GGP 개요

- 최근 유럽에도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에도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GGP가 활성화되고 있음
- 더 나아가 국제비교를 통해 저출산 현상의 국제적인 공통점과 개별 국가별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음.
- 지난 30년간 3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함
- 2020년, 2021년 새로운 라운드(round)가 시작됨
- 대체로 3년 간격의 2~3 웨이브(wave)를 권장함.
- (조사 대상) 약 10,000명의 19~79세 남녀 또는 약 5,000명의 19~49세 남녀 개인
- (목적) 인구와 가족 변동(dynamics)과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여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 형태) 횡단조사(cross-sectional)와 패널조사(panel)와 차별적인 종단(longitudinal)조사임
 - 생애주기를 반영한 생애 이벤트를 추적하기 위해 일회성 횡단조사는 한계가 있음
 - 개인의 출산 의향과 계획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함
 - 비용절감효과(패널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진행 방식) 첫 번째 조사(first wave)에서는 자세히 질문하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조사(second or third wave)에서는 첫 번째 조사에서 질문한 출산관련 의향과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조사함
- Generations & Gender Survey 표본과 데이터 수집: 표본 추출 및 데이터 수집은 개별 국가가 자유롭게 추진
 - 면접조사(포르투갈)
 - 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 병행
 - 안내문과 동의서를 보낸 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형태의 조사 방식이 가장 보편적
 - 주소 목록을 통해 우편 발송 후 온라인을 실시(스웨덴)
 - 'push-to-web' pilot study
- Generations & Gender Survey 조사 수행의 어려운 점
 - 여러 나라에서 조사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조사 응답률(response rate)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GGP 조사 및 데이터 관리 구조



□ GGP 출산력 주제 및 젠더 이슈, GGP 중앙코디네이션 본부의 역할, 차기 조사 진행 관련 논의

- 일시 및 장소: 2019. 7. 31. 13:30~15:30 ; GGP 중앙코디네이션 본부
- 담당자: Dr. Thomas Emery(GGP Central coordination Team)

○ 조사 명칭

- 1990년대 출산력과 가족 조사(Families and Fertility Survey)에서 세대와 성 조사(Generations & Gender Survey)로 명칭 변경
- 조사 명칭의 변화는 조사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조사 성격) 횡단조사에서 종단조사로 확대
 - (조사 내용) 출산력자체보다는 성(gender) 관련 내용, 생애주기와 가족 관련 내용으로 확대
 - (조사 대상자) 조사대상자의 연령 확대(49세에서 79세로 확장)

○ 조사 관련 젠더 이슈 발생 여부

- 성역할(gender role)을 이해하는 것은 출산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가치관 등에 관한 문항은 존재하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음
 - 성차별적 문항의 경우도 남녀 모두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응답하고 싶지 않은 문항에 응답하지 않도록 “잘 모름” 또는 “무응답(생략)”의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음
- 남성과 여성의 문제보다는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가 있음
 - 이전 파트너에 관한 문항이 조사 대상자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예민한 편임.
 - 성에 중립적인(gender-neutral) 조사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GGP 중앙코디네이션 본부의 역할

- 국가 참여 독려(본조사 및 시범조사(pilot survey)/ 현재 두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웨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시범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국가는 크로아티아, 독일, 포르투갈)

- 문항 개발
- 웹조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가이드라인 제공
- 번역 도구(TMT; translation managing tool)을 통해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설문 문항을 점검하고 확정함(과거에는 유럽 국가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번역은 주된 문제가 아니였으나 영어로 조사가 어려운 나라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번역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 GGP 중앙본부(hub)에서 온라인 조사 결과를 사전 코딩을 통해 데이터 자료로 전환(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 Data 제공
 - 2018년 데이터 제공(data download) 건수는 매달 약 432건으로 나타남
- GGS를 활용한 논문을 점검과 관리
 - GGP bibliography에 1,236개의 논문이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논문은 Demographic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Populations, Space and Place, Work, Employment and Society와 같은 주요저널에 수록되어 있음

○ 차기 조사를 위한 단계

- 국가에 따라 2020년 또는 2021년에 차기 조사가 수행될 예정임
- 현재까지 30여 개 국가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예산 확보의 과정에 있는 국가도 있음
- 사전 절차는 다음과 같은 2단계가 있음
 - GGP 중앙 코디네이션 본부에서 Statement of Intent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단계는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가 GGP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단계임. GGP는 이를 통해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를 관리(monitoring)할 수 있고 각 국가는 이를 예산 확보를 위해 활용함

- 국가별 national planning 단계에서는 각 국가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조사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함
- 차기 조사를 위한 Generations & Gender Survey 조사 문항 개발
-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자녀 돌봄에 관한 책임, 자녀에 대한 경제 지원에 관한 책임,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책임,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책임 등 4개의 영역을 추가로 개발함.
 - 첫 번째 라운드를 분석하여 보다 문항수를 줄임으로써 응답 시간을 기존 52분에서 40분으로 감소시킴
 - 보다 간략하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구성
 -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문항 구성
 - (소득과 직업 관련 문항의 변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소득과 직업 분류를 세분화함
 - 국제비교가 가능한 문항 외에 추가로 국가별 일부 문항 삭제와 첨가가 가능
 - 시계열 유지를 위해 가능한 문항을 유지하여 지표(updated list of indicators)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되, 간단하게 하는 것(simplified list of indicators)을 원칙으로 함.
 -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도록 살펴봄. 최근의 이슈는 이민과 소외(isolation)임.
 - 인구학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하되 조사대상자가 대답할만한(tolerable) 수준의 문항을 개발함.

□ Generations & Gender Survey를 활용한 연구에 관한 논의

- 일시 및 장소: 2019. 8. 1. 10:00~12:00 ; 암스테르담
- 담당자: Dr. Anne H. Gauthier (University of Groningen and 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 Generations & Gender Survey 조사 데이터의 이용 방법
 -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public-use data).
 - 데이터를 요청한 경우 일정 심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 기관(연구기관, 대학, 정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경우 쉽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음. 단, 논문을 쓰는 학생인 경우는 교수가 함께 신청을 해야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음
- Generations & Gender Survey 조사 데이터 이용에 도움이 되는 행사
 - GGS를 활용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설명회 (user conference)를 실시
 - GGS를 활용한 논문 발표를 위한 국제컨퍼런스(학술대회)가 매년 개최됨
- Generations & Gender Survey 조사 데이터 이용의 장점
 - GGS를 활용한 최신 논문들에 대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큰 성과가 있음
 - 관련 연구자 간의 주기적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이 잘 이루어짐
- Generations & Gender Survey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 현재까지 4,000명 이상의 연구자가 GGS를 활용한 논문을 발표
 - GGS 활용 논문은 GGP의 GGS study profile을 통해 확인 가능
- Generations & Gender Survey 데이터의 활용
 - GGP에서 'The Rush of Hour of Life'라는 이름의 행사를 주최하는

데, 해당 행사에는 교육부, 문화 과학부, 노동 사회부처의 담당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의 설계가 가능함

- Generations & Gender Survey 데이터를 활용한 최근의 논문 소개
 - GGS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 12월 생애주기에 따른 성불평등 (gender inequality)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해당 연구에서 GGS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주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무급노동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을 강조하는 정책의 설계와 추진이 필요함
 - 질이 높고 부담이 적은 자녀돌봄지원 정책은 돌봄에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임
 - 아버지의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할아버지의 손자녀 돌봄이 유럽 전역에 있어서 보편적인데, 이는 손자녀가 성장했을 때 노동시장의 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세대간 연계가 매우 중요함